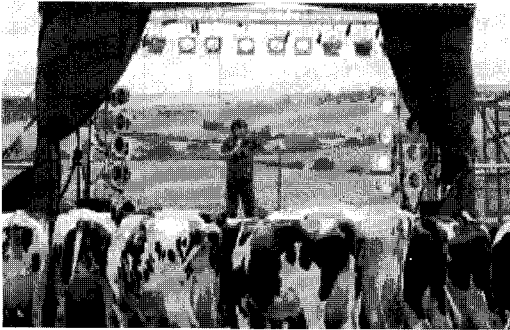


젖소를 위한 유머콘서트



영국에선 젖소들을 위한 유머콘서트를 열어 화제다. 행복한 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한다. 화제의 현장은 영국 하트포드셔 농장. 농장주가 코미디언을 초청해 소들을 위한 유머 콘서트를 열었다. 무대에 오른 사람은 밀턴 존스라는 유명 코미디언이다.

“그럼, 이 코미디언이 젖소들을 웃긴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다. 이 코미디언은 소들에게 “여러분 모두 채식주의자군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고 있다니 웬말입니까?”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소들 반응은 아주 싸늘했다. 심지어 몇몇 소는 콘서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행사가 끝나기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하지만 이 콘서트를 기획한 농장주는 소가 행복하면 더 많은 젖을 낸다고 효과를 자신하면서, 표현은 못해도 소들이 소를 즐겼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일부 낙농목장 근로자 89%가 불법 이민자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낙농목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89%가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로 밝혀졌다. 미국 국토안보성에 따르면 모간시 낙농목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자격서류를 점검한 결과 전

체 근로자 중 89%에 해당하는 59명이 불법체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20여명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11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근로자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혐의가 입증되면 출국 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자 지원단체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착유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들 근로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ww.dairyherd.com 6월1일자)

미국, 유대 및 수출량 호조로 우유생산량 증가

5월 기준 미국 우유 생산량은 유대 호조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된 172억파운드가 생산된 것으로 농무성이 발표하였다.

젖소 사육두수도 전년 대비 0.9%가 증가된 920만두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젖소두당 생산량은 1천877파운드(851kg)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미국 내 우유거래가격은 3등급 기준 35개월 내 최고 수준인 100파운드당 20.2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같은 거래가격은 작년 대비 48%가 오른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향후 우유생산량은 금년 봄 일부 지역의 냉습해로 조사료 생육조건이 악화되고 사료질이 저하되어 젖소 두당 생산량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 해외 주문량 증가로 1/4분기 중 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42만9천톤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www.bloomberg.com 6월18일자)

일본, 원자력 발전 사고로 멸균유 수출 급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력 발전사고 영향으로 장기보존 가능 멸균유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도되

었다. 롱라이프 우유 수출을 전담하는 일본 경제농업 협동조합연합회(호쿠렌)에 따르면 4월 기준 멸균유 우유 수출량은 전년대비 46%가 감소한 160톤에 불과하였고 5월은 90%가 감소한 27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에 따르면 홍콩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부터 주문량은 3월 하순부터 감소하여 4월 중순부터는 제조를 거의 정지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문량은 서서히 늘고 있지만 전년대비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호쿠렌은 이에 따라 4월 하순부터 현지 소매점에서 대면 판매를 개시하고 현장의 소리를 모아 판매에 유효한 선전 홍보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롱라이프 우유 수출량은 지난해 전년대비 33%가 증가한 2천673톤으로 '08년 중국에서 일어난 멜라민 사건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일본농업신문 5월31일자)

호주.인도네시아, 생우 수출 중단 갈등 고조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호주산 생우 수출 잠정중단을 놓고 때아닌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호주 축산업계가 생우 수출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호주 연방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가 향후 6개월간 자국에 생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생우 수출을 중단시켰다”고 비난하고 “호주가 무역관행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호주 언론들이 9일 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인도네시아 농림부 장관은 “호주 정부의 갑작스런 생우 수출 중단조치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생우 수입 국가를 인도와 남

미로 다변화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크리스나무르티 장관은 “호주 정부가 호주 축산업계의 고충을 받아들여 다음주부터는 생우를 수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치권과 축산업계는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이 성급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호주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야당인 국민당의 워런 트러스 대표는 “연방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연간 3억호주달러(3천450억원상당)가 넘는 생우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을 막았다”면서 “이로 인해 호주 북부지역 축산농가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 단체 라이브 코프는 축산업자 이외에 1만 1천명에 달하는 생우 운송업자, 검역 관계자 등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생우 수출 중단을 둘러싸고 안팎에서 반발이 확산되자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생우 수출 중단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길라드 총리는 “인도네시아 도축업자들이 동물보호 차원에서 도축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수출은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축산농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월 정부가 축산업계에 동물학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며 “하지만 축산업계는 동물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도축업체들이 호주산 생우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TV 방송에 보도된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우 수출을 6개월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6월 8일 발표했다. ㉠